

# 가금질병소독 7문7답

(출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정보 발체)

## 1. 두 종류 이상의 소독제를 현장에서 혼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 소독제에 따라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직접 실험을 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대부분 두 소독제 성분 간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으로 소독효과가 떨어지거나 그 효능이 없어질 우려가 훨씬 높다.

## 2. 바닥에 생석회, 계사 천장과 벽에는 다른 소독제로 소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석회는 강알칼리성 소독제이므로 수산화나트륨, 탄산소다 등의 알칼리성 소독제가 아닌 다른 소독제, 예를 들어 버콘-S과 같은 산성소독제로 천장과 벽을 소독하면 그 소독약이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알칼리인 생석회와 반응하여 중화됨으로써 소독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구제역 발생현장에서 길바닥에는 생석회를 하얗게 뿌려두고 지나가는 차는 복합산성소독제인 버콘-S를 뿌려 소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차에서 흘러내린 산성소독제가 생석회와 섞이면 중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오류는 바로 시정돼야 한다.

## 3. 생석회를 길바닥에 가루상태로 뿌려도 소독효과가 있을까?

생석회는 흙이나 젖은 땅에 뿌리면 물에 녹아 높은 열을 내면서 강한 알칼리로 변해 소독효능을 발휘하므로 물이 없는 길바닥에 뿌리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바람에 날릴 경우, 눈에 들어가면 자칫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고 다른 소독제의 효과를 오히려 상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바닥에 생석회를 가루상태로 뿌리는 소독방법은 피해야 한다.

## 4. 겨울철에 소독약이 얼게 되는데 어떻게 소독해야 할까?

외부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져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소독시설에 난방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소독시설 뿐만 아니라 소독조 아래에도 열선을 배치하여 겨울철 동결을 예방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소독제의 희석농도를 높여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온도가 낮아져 쉽게 얼지 않고 소독효과가 감소되는 것도 다소간 보강해 준다.

겨울철 소독은 일반적으로 저온에서도 효과를 잃지 않는 알데히드류나 차아염소산염 소독제가 권장되나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저온에서의 소독제 효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아염소산염 소독제는 고온일수록 불안정해지며 알데히드류는 20℃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효력이 떨어진다.

## 5. 쥐나 파리 등은 소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래 소독작업 전에 쥐나 파리, 외구모 등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매개체는 모두 잡아야 한다.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소독되지 않은 이러한 매개체가 한 번 지나기면 그야말로 모든 소독작업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 6. 닭 출하 후 계사를 소독한 다음 재입식하기까지 얼마동안 계사를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할까?

소독만 완벽하게 된다면 굳이 계사를 오랫동안 비워둘 필요가 없으나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완벽한 소독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병원체에 대비해 2개월여 정도 비워두면 안전하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2~3회 계속적으로 소독한다면 2주 정도 비워두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 7. 가금티푸스, 뉴캐슬병이 발생 이후 계사를 완전히 비우고 소독한 후에 입식했는데 병이 재발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소독제의 효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할 만큼 병원체의 오염농도가 높으면 아무리 소독을 잘 해도 농도는 약하지만 병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소독 전 청소가 잘 안됐거나 소독제의 선택 또는 희석량이 잘못된 결과에서 비롯된다. 둘째, 계사 내부는 철저히 소독했으나 계사 외부나 관리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했거나 빠뜨린 경우이다. 가령, 질병 발생 당시 관리인의 옷이나 신발, 사양기구 등에 묻었던 병원체가 관리인의 집 안쪽에 오염되어 있다가 소독된 계사로 재유입되는 경우이다. 야외양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셋째, 쥐, 파리, 모기, 외구모 등 계사 내·외부를 돌락거리는 오염 매개체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독된 계사로 다시 들어와 재오염 시킨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넷째로는 오염된 사료를 매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